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현실과 환상의 균형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7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장지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현실과 환상의 균형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lance of Reality and Fantasy
- Focused on my painting -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장지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현실과 환상의 균형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lance of Reality and Fantasy

- Focused on my painting -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전 공

장지원

장지원의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현실과 환상의 균형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장지원

우리의 주변엔 ‘엄친 딸’(엄마친구 딸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낸다.)이라는 완벽한 존재가 있다. 그런 완벽한 존재는 나에게 큰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환상의 세계를 찾는다. 나의 작품은 버거운 현실로부터 환상으로 도피(逃避)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본 논문에서 나의 작품은 소요유(逍遙遊)미학과 초현실주의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 궁극적인 목표인 절대 자유의 경지를 노니는 것과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은 앞으로의 작품에 큰 뿌리가 된다.

MindControl1에서는 불완전한 존재가 환상에서 조차 완벽함을 얻지 못하는 허탈함과 괴리에 대해 담고 있다. MindControl1의 불완전한 나는 환상의 세계를 가지 못하고 고통만 느꼈던 실패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Delicious Paradise 시리즈에서는 좀 더 강렬하게 현실과 환상을 연결 시켜줄 매개체를 찾는다. 내가 평소 현실에서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환상의 기분으로 빠져들게 하는 디저트를 선정 했다. 현실과 다른 비합리적이고 불가사의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초현실주의를 기반으로 작품을 그린다. 세계를 설정한다. 현실의 볼품없는 나의 모습으로는 환상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다. 때문에 고급 포크, 티스푼 등에 위장을 한다. 그러나 나는 완벽한 것에 맞추려던

스스로에게 지쳐 힘들어 한다.

Delicious Paradise – 드로잉 시리즈에서는 너무 환상에 치우쳐져 버거워 하는 나에게 환상과 현실의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 준다. 환상의 세계에서 고급 포크로 위장한 불품없는 자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외형을 보여준다. 본질의 모습인 일회용 수저는 저울의 추처럼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가며 평화로운 환상의 세계를 유랑한다.

‘엄친 딸’이라는 완벽한 존재로부터 환상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환상의 세계에서 조차 나는 ‘완벽’이라는 것에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 안식을 취하러 왔던 곳에서 도리어 뻣뻣한 긴장감을 얻는다. 현실과 환상의 불균형 속에서 균형을 찾고자 나는 나의 본 모습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나는 환상 속에서 안식과 행복을 느낀다. 이것을 시작으로 소요유의 상태를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나와 작업을 기대해 본다.



【주요어】 환상, 현실, 완벽, 도피, 균형, 소요유, 초현실주의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소요유(逍遙遊) 미학	3
2.2 초현실주의	6
III. Mind Control의 세계	9
3.1 환상과 도피	9
3.2 현실에서 환상세계로 가는 도피	13
IV. Delicious Paradise시리즈의 세계	17
4.1 디저트가 주는 환상	17
4.2 디저트가 제공하는 환상과 균형	20
V. 결 론	44
참고문헌	46
ABSTRACT	48

그 림 목 차

<그림 1> MindControl1	13
<그림 2> Delicious Paradise – 완벽한 위장	20
<그림 3> Delicious Paradise – 완벽한 위장1	23
<그림 4> Delicious Paradise – drawing	27
<그림 5> Delicious Paradise – drawing2	28
<그림 6> Delicious Paradise – drawing3	32
<그림 7> Delicious Paradise – drawing4	35
<그림 8> Delicious Paradise – drawing5	36
<그림 9> Delicious Paradise – drawing6	41
<그림 10> Delicious Paradise – drawing7	40

I. 서 론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듯한 아름다움에 매혹 된다. 현실과 동떨어짐을 좋아하는 것은 힘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기질이 내재되어 있다. 그 기질은 이 세상이 아닌듯한 곳을 꿈꾸는 갈망을 초래한다. 그 곳은 일종의 아름다운 도피처이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눈을 뜨며 직시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다른 곳을 찾아 간다. 그러면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현실과 현실이 아닌 아름다움의 경계는 곧 이질적인 아름다움이 된다. 이질적인 아름다움은 내게 항상 새로운 설렘을 주는데, 그 이유는 환상의 세계로 도피 할 수 있는 출입문이 되기 때문이다.

디저트(dessert)는 상상과 현실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럼, 만화, 영화, 상상의 세계에 손을 뻗는다. 그러나 그 곳들은 직접 들어가 참여 할 수가 없다. 벗어나는 행위에 통제를 받게 되면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 그럴 때 현실에 존재하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존재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디저트는 눈앞에 바로 있고 느낄 수 있다. 오감이 모두 만족이 되는 디저트(dessert)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달콤함이 주는 힘은 단숨에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형성한다.

그러나 딜리셔스파라다이스(Delicious Paradise)는 실재하지 않는, 꿈결 같은 이질적인 아름다움의 공간이다. 이는 호접몽의 장자(莊子)¹⁾처럼 꿈을 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자는 나비가 되는 좋은 꿈을 꾼다. 이처럼 디저트(dessert)를 다 먹고 나면 한바탕 좋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장자는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지만 나는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해 생긴 갈망은 욕망이 된

1) 중국 고대의 사상가, 제자백가(諸子百家) 중 도가(道家)의 대표자. 도(道)를 천지만물의 근본원리라고 보았다. 이는 도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며(無爲), 스스로 자기 존재를 성립시키며 절로 움직인다(自然)고 보는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이다. 네이버지식백과. 장자 [莊子],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639&cid=40942&categoryId=33395>

다. 디저트를 먹으며 환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늘 이질적인 아름다움의 경계에서 설렘을 맛보는 꿈을꾼다. 부질없는 것을 알지만 끊임없이 꿈을 재생산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본인의 작품은 현실과 환상사이를 오고가는 경계를 다룬다. 환상은 현실을 초월한 공간 즉, 초현실주의에 근거한 작품이다. 초현실주의가 기반이 되는 작품은 소요유(逍遙遊) 미학을 따른다. 소요유 미학은 작품의 스토리의 주요 뼈대가 된다.

작품에 밑거름이 되는 초현실주의와 소요유 미학을 어떤식으로 작품과 연계가 되는지 Ⅱ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작품 분석이 중점이다. 3.1은 작품의 주된 키워드인 도피와 환상에 대한 서사를 하며 도피와 환상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괴로운 현실에서 환상으로 첫 도피처가 물속이 되어 준 작품에 대하여 서술 한다. 3.2에서 물속에서의 도피를 실패하여 Ⅳ장에서는 현실에서도 달콤함이 가득한 디저트세계를 구현한다. 달콤함의 절정인 디저트에 대해 서사를 하고 환상과 달콤함의 교집합을 고찰한다. 실패를 한 기억은 과장된 환상세계를 구현한다. 자신을 옥죄면서 까지 환상세계에 있고 싶은 욕망과 실패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점철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환상세계에 있기 힘든 사실을 받아들인다. 환상과 현실의 적절한 균형을 소요유 미학에 기반을 두고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서술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현실을 초월하는 공간에 있던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현실에 있던 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외형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본질은 동일한 자신임도 깨닫는다. 따라서 지금의 있는 모습과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 있던 그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즐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됨으로서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소요유(逍遙遊) 미학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인간은 자연스레 자유를 소망한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세뇌 시킨 것도 아닐진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찾아 헤메인다. 자유 앞에는 소요유(逍遙遊)가 있다.

소요유에서 ‘소요’란 지인(至人)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지인은 부처라 그의 마음은 불심(佛心)이다. 그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소요이다. 소요하는 지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만물의 본성을 이해 한다. 편견 없는 시각과 마음으로 만물들을 그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만물에 얹매이거나 엮임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지에 오르면 세상의 어떠한 구속 없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만물과 조화로이 지낼 수 있다.

‘유’에 대해서 진계천(陳啓天)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소요유란 소요(逍遙)하면 유(遊)하는 바이다. 소요는 자유자재(自由自在)를 뜻하며, 유(遊)는 정신활동을 일컫는다. 정신활동은 자유자재를 욕구하기에 무엇보다 먼저 대지(大智)의 달관(達觀)으로 소지의 구속을 해제시켜야한다.”²⁾

진계천은 ‘소요(逍遙)’는 자유자재를 의미하고 ‘유(遊)’는 소지(小知)를 벗어나 대지(大智)를 깨달은 고차원의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소요와 유는 서로 상통한 뜻으로 본다.³⁾

소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신을 대하는 자세가 얹매임 없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한 자세라면 유는 그러한 자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다. 이러한 자세가 평범한 인간에게 바로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싱그러운 젊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2) 조경현, (1991), “소요와 장자 철학”, 『중국철학』, 2권, 중국철학회. p.97-98

3) 조경현, 상계논문, p.97-98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나 욕망을 참지 못해 못난 사람이 되곤 한다. 법정스님의 무소유⁴⁾에서도 말하듯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릴 줄 알며 놓아 버릴 것은 놓아 줄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우기보단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알고 있어도 쉬이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존망은 욕망에 달린 듯이 모두 바쁘게 쟁취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 이른바 ‘엄친 딸’이다. 엄친 딸은 엄마친구의 딸을 줄인 말이다. 엄친 딸은 모든 것을 잘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며 노래도 잘한다. 엄친 딸은 또 모든 것을 가졌다. 예쁜 얼굴, 예쁜 몸매, 예쁜 마음, 좋은 부모, 돈 걱정 없는 부유함. 엄친 딸의 완벽함과 화려한 명성은 나를 주눅 들도록 만든다.

엄친 딸의 완벽함은 나로 하여금 자기비하에 빠지게 한다. 완벽하지 않은 나는 엄친 딸의 장점을 열거하며 일일이 비교한다. 비교는 곧 자기혐오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완벽이라는 욕망이 불타오른다.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탐욕스런 인간으로 변한다.

자기혐오와 완벽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현실의 자신을 더욱더 불품없고 초라하게 만든다. 나를 나로서 살아갈 자유를 잃고 모든 것에 구속되고 얹매인다. 이런 마음과 정신 상태는 나를 굽어 먹는다.

과한 욕망은 피폐해진 정신상태만을 남겼다.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행위도 지치고 힘이 듈다. 괴롭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것은 없다. ‘나’를 잊어버린 상태가 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자유를 갈망한다.

모든 것에 얹매이고 구속을 당하고 모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나는 나를 찾기 위해 자연스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요유를 찾는다. 장자의 이상향이라 불리는 소요유에서 편안한 안위를 갖기를 원한다. 모든 것에 구속을 받지 않고 얹매이지도 않는 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오만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4) 이 작품은 1972년 『동아일보』에 실린 법정스님의 수필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욕이 가져다 주는 비극을 전하는 작품이다. 법정스님, (1972), 『무소유』, 서울: 범우사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 만물을 이해한다. 사사로운 감정 없이 그냥 이해하며 인정한다. 그런 자유자재 함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정신활동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도록 나는 나아간다. 나는 그 과정을 작품에 기록하듯 그린다.

“하루는 장주(莊周)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장자는 나비가 되어서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깨닫지 못했다. 문득 깨어 나 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어떤 구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컬어 ‘사물의 변화(物化)’라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번 편 서두에서 말한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는 세계이며, 이러한 세계를 체득하게 될 때 필요없는 아집과 편견, 국지주의와 자기중심적, 오만 등에서 풀려나 관용, 아량, 트임, 조화,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세계에서 노닐게 된다. 이것이 장자가 상당히 길고 어려운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결론이 된다.”⁵⁾

궁극적으로 나는 자유세계에서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이해하며 노닐게 될 것이다.

5) 오강남, (1999),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장자』, 서울: 현암사, p.134-137

2.2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창조위한 파괴’에서 ‘창조’의 핵심엔 ‘꿈과 무의식이’ 이 위치한다. 주로 문학의 영역 이었던 초현실주의 운동은 이후 에른스트, 달리, 마그리트, 앙드레 마송(Andre Masson, 1896–1987), 호안 미로(Joan Miro, 1893–1983), 한스 아르프(Hans Arp, 1887–1966), 조르조 테 카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등이 가세하면서 초현실주의는 1924년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⁶⁾을 기점으로 결정적인 예술적 추진력을 가진다. 브르통은 이 선언문에서 리얼리즘의 ‘상위에’ 내지는 리얼리즘을 ‘초월하는’의 의미를 갖는 ‘초현실주의적’(surrealist)라는 단어의 의미를 선언 했다. ‘초현실주의적’은 ‘연상 작용이 가지는 빼어난 리얼리티’, ‘꿈의 전지전능과 계산적이지 않는 사고의 활동에 대한 믿음’으로 규정하고 꿈과 상상력이 지닌 능력에 대한 신뢰를 명시한다.⁷⁾

벤야민은 현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칸트적 의미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여 자연과학적 인식이 되기 위한 경험에 포함되지 않는 경험이 주요하다는 것이다. 벤야민은 이성에 의해 자각된 현실은 전부 현실이 아니고 부분적 경험에 불과한 이성의 한계라고 주장했다. ‘기억’, ‘꿈과 깨어남’, ‘충격체험’, ‘마약체험’, ‘기시감’과 같은 초 심리학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주목한다. 벤야민의 인식은 초현실주의 회화가 현실을 내보이기 위해 예술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적 수단과 일맥상통한다.

6) 초현실주의 선언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1차 초현실주의의 선언은 1924년 ‘오토마티즘(자동기술법)’이 중심 강령으로 채택되고, 『초현실주의 혁명』이란 잡지를 창간한다. 사물들의 비논리적 결합 및 병치인 ‘오브제’ 및 막스 에른스트의 ‘프로타주’, 르네 마그리트의 ‘데 페이즈망’ 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초현실주의 회화의 주된 기법으로 자리한다. 그 이듬해 1925년 최초의 초현실주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그 이듬해인 1926년엔 초현실주의 화랑을 파리에 개관하면서 초현실주의 운동은 절정에 도달한다. 제2차 초현실주의 선언은 1926년 마르크시즘에 기초하여 현실 비판과 현실 참여를 표방한다. 실제로 혁명을 위한 초현실주의 잡지를 발간하지만, 태생적으로 자유분방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마르크시즘은 병존할 수 없었다. 이후 1942년에 제3차 초현실주의 선언이 발표되나, 1929년 초현실주의자들의 세계 2차 대전 참전을 위한 군입대와 망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종료되었기에 제3차 초현실주의 선언은 유야무야된다. 이후 뉴욕으로 피난한 초현실주의자들은 잭슨 프록을 비롯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번역·주석·해석, 『초현실주의 선언』, (2012), 경기도: 과주 미메시스

7) 매슈 게일, 오진경 역. (2001).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 한길아트, pp.217

브르통은 이러한 상상과 환상, 신비 체험을 반(反)리얼리즘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리얼리티의 보다 높은 단계로의 전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총체적 현실을 형상화하는 수단으로 규정한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은 두 가지 상태인 꿈과 현실이 미래에는 일종의 절대적 리얼리티라 할 수 있는 초현실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리라 믿는다.”⁸⁾

브르통은 이와 같은 변증법적 신념을 통해 두개의 리얼리티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회화의 전체적 의미와 의의를 파악한다면, 회화 속에 형상화된 꿈과 무의식 등의 심리학적 요소들의 상태와 그 의도를 자세히 고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당시대 현실에 관한 초현실주의자들의 현실관을 전체적으로 알아 낼 수 있다.

“초현실주의” 미술에서는 주로 무의식과 환상, 기억의 세계 즉 초현실적 세계를 회화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한다. 이것을 통해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기존의 현실 및 이성 짐지어는 작가 자신의 견고한 자기 동일성을 해체한다. 그리고 물리적 시공간을 지양·극복한다. 현실을 전치(displacement) 한 ‘유사성의 세계’를,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의식적 기억’을 통해 작품 속에 표현한다. 이들의 상상력은 ‘미메시스(mimesis, 모방)능력’으로 작동하여 실제 현실에 없는 세계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에 근거한 유사 세계를 구축하여 미적 경험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미술 속에 재현된 ‘유사성’의 세계는 특수하고 공허한 세계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본질’과 ‘전체성’을 경험하게 하는 미적 경험을 내주어야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 미적 체험을 통해서 꿈에서 깨어나 있어야 하는 당위적 사실을 다시 발견함을 역설한다.”⁹⁾

현재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현실로부터 이질적인 아

8) 매슈 제일, 오진경 역. 상계서. pp.219

9) 이기원, (2014), 『초현실주의 회화의 현실관 연구: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마그리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4

름다움에 홀리곤 했다. 이질적인 아름다움이란 지나가는 길에서 공기 중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본다거나, 육조에서 잠수를 했더니 그 아래 바다 속이 펼쳐진다거나, 비가 내리더니 이 세계가 녹아 흐른다거나, 날 도와줄 요정들이 나타난다거나 등의 것들이다. 이질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본인은 극한 행복을 느낀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아름다움은 환상과도 같다. 단편적인 이미지인 환상을 환상의 세계로 구축해 간다. 본인의 상상 속에 있던 세계를 종이나 견(絹)에 구현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현실주의’를 선택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화가란 자신의 내면에서 보이는 것을 뚜렷한 윤각으로 그려내거나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의식, 꿈, 환상의 세계를 탐색했다. 불가사의 한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현실공간에 공존시켰다. 그리하여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상상을 종합한다. 그리고 대립, 모순되는 것들을 융합하는 초현실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¹⁰⁾

이상향이자 환상의 세계는 불가사의하고 비합리적인 곳이다. 그것을 미술이론 적으로 잘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초현실주의뿐이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는 현실과 환상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초현실주의자 중 한명인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를 인간의 양면성이라 정의했다. 즉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라는 형태로 균형을 맞추어간다.¹¹⁾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는 이성적인 면과 비이성적인 면, 현실과 환상의 균형과 일맥상통 한다. 초현실주의는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절절한 수단 이다.

10) 신현숙, (1992),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p.217

11) 최지희, (2007),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8

III. MindControl의 세계

3.1 환상과 도피

3.1.1 도피(逃避)에 관한 연구

도피(逃避)는 고통스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적응하기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이다. 도피의 유형으로는 개인적 도피, 집단에의 도피, 문화에의 도피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본인의 도피의 성향은 개인적 도피와 집단에의 도피 두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인적 도피는 개인이 어떤 대인관계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립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개인적 도피의 형태로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고립적 경향이 있다. 또 대인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인간혐오의 경향을 비롯하여 공상에의 도피와 퇴행현상 등이 있다.

집단에의 도피는 개인이 자신의 책임과 신념 아래 행동하기를 자신감이 사라지거나 불안해하면서 집단이 강요하는 규범을 별 저항 없이 순응한다. 그래서 집단행동이나 지도자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방향을 상실하고 불안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¹²⁾

‘엄친 딸’의 마치 전설과도 같은 화려한 명성은 하나의 규범이 된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었고 대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엄친 딸’의 명성의 모든 것은 누구나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다. 기정 사실화가 되어 버린 규범을 사회집단은 강요를 하며 받아들이라고 한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어야 나는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불품없는 일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나오지 않는 성과는 실패감과 씁쓸함만을 주었고 선천적으

12) 네이버지식백과, 도피[escape,逃避],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380&cid=40942&categoryId=31531>

로 타고 난 것에는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결과와 자기비하적인 자신감 부족은 점점 불안감과 무력감을 증폭시켰고 스스로 고립된 상황을 만들었다.

스스로를 고립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공상으로, 환상으로 도피를 한다.

3.1.2 환상에 관한 연구

우리는 보통 너무 아름답거나 이 세상의 아닌 것 같은 미혹에 훌릴 때면 ‘너무 환상적이야!’라고 종종 말한다. 그렇다면 종종 쓰이는 환상은 정확히 무엇일까.

환상의 환(幻)은 ‘변화와 미혹, 요술이나 허깨비’, ‘허무, 변화, 의혹, 신기’로 사람을 속이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환상’은 무엇인가. 최기숙(2010)이 언급한 다음을 봄으로 해보자.

“불교적 의미에서 ‘환(幻)’은 실체가 없는 것을 능히 변화하여 보이는 것, 없던것이 훌연히 있는 것,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종의 영상(影像)이란 의미로 통용되었다. ‘환’이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으로 실체도 없고 자성(自性)도 없이 이름만 있는 것을 비유하는 의미로서, 일체의 사상(事象)에는 실체성이 없고 오직 환(幻)과 같이 가상(假相)을 현출(現出)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나타난 상(相)을 환상(幻相), 그 존재성을 환유(幻有), 그 나타난 사상(事象)을 환화(幻化)라고 하였다.”¹³⁾

즉, 환상이란 오감(五感)으로 확연히 느낄 수 없다. 존재하되 흐릿한 잔상과도 같은 존재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뿐만 아니라 안개와도 같은 모호함을 가진다. 마치 뿐만 아니라 안개와도 같은 환상은 강한 호기심을 자극 한다. 과연 저 안개가 사라지면 무엇이, 어떤 곳이 나올까. 언뜻 느껴지는 모호함이 아니라 확실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까.

13) 최기숙, (2010), 『문학의 기본 개념3-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p.9

합리적임과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공간에서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본인은 자연스레 인간의 공간과 멀리 떨어진 비합리적임과 비이성적인 공간에 관심을 표한다. 현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그 곳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이해하지 못하며 집착하고 구속을 하여 ‘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 본인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환상을 향해 떠난다.

환상은 무의식 이론을 통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세계와도 같다.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현상이 가능한 공간의 특성이 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을 지각(知覺)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¹⁴⁾ 본인 역시 그 욕망이 있다. 그 욕망 안에는 ‘잃어버린 나’가 그 곳에 있을 것만 같은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고통스런 현실과는 달리 환상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상향일 것이다. 초자연적인 힘이 가능한 곳은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을 완벽히 이를 수 있는 곳이며 완벽한 나로 발전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다.

3.1.3 도피와 환상의 관계 정립

다원화된 현실생활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스트레스는 무수한 문제점들을 야기 시킨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는 위궤양, 암 등 무서운 질병들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스포츠 활동이나 산책, 명상 또는 그 외 다양한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 다양한 방법 중 나는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상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 한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눈을 뜨며 직시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다른 곳을 찾아 간다. 그러면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펼쳐진 세계는 현실과 환상이 공존을 하는 묘한 공간이다. 꿈을 꾸는 순간 설렘과 쾌락이 반긴다. 사람들은 힘들면 심리상담가에게 상담을 하며 응어리진 감정이나 우울함을 덜고 나온다. 반면에 나는 환상세계에서 힘든 감정의 찌꺼기나 우울함을 버리고 나온다. 환상은 나에게 설렘을 줌과 동시에 힘든 감정이나 우울함을 버릴 수 있는

14) 이채론, (2010), 『팀 버튼의 환상성 연구:<이상한 나라의 앤리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애니메이션학과, 석사 학위논문, p.17-18

시원한 해우소 역할도 한다.

현실생활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 이고 원치 않은 상황이 될 때도 너무 많다. 그럴 때마다 종종 상상을 한다. 단순하게는 하늘을 날아 본다는 것에서부터 현실에서 마법을 부려보는 것,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엘프나 요정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는 경험 등. 현실에선 행할 수 없는 일들,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들이 나에게는 짜릿한 쾌락과 설렘을 준다. 청량음료 같은 상쾌함과 동시에 편안한 안정감도 준다. 환상세계는 자잘한 걱정에서부터 큰 걱정 까지 현실과 연계된 모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설렘과 쾌락만을 느끼며 당장의 행복만 생각 하면 되기 때문이다.

환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두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거나 피해버리는 현상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장의 현실에서 동떨어짐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종류가 있다. 문제가 생긴 현실을 피해 잠을 잔다거나 시험공부가 하기 싫어 만화책을 본다거나, 시끌벅적한 물리적 상황과 마음의 상태로부터 떠나 여행을 한다거나 혹은 현실과 아예 동떨어진 환상(Fantasy)을 찾는 경우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안식만을 생각한다. 환상으로 가기 위해선 도피를 해야 한다.

환상세계는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인 동시에 도피가 되어 버렸다. 좋은 스트레스 해소는 현실과 긍정적인 쌍방향 관계가 되어 소통이 된다. 원활하고 윤택하게 현실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닌 단절된 채로 서로 빗장 걸어 문을 굳게 닫는다. 환상에 빠졌다가 현실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우울해진다. 삶의 활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런 관계는 악영향만 줄 뿐, 옳지 않다. 서로의 좋은 점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되어야 한다. 빗장을 열어 서로 오갈 수 있게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현실에서 환상세계로 가는 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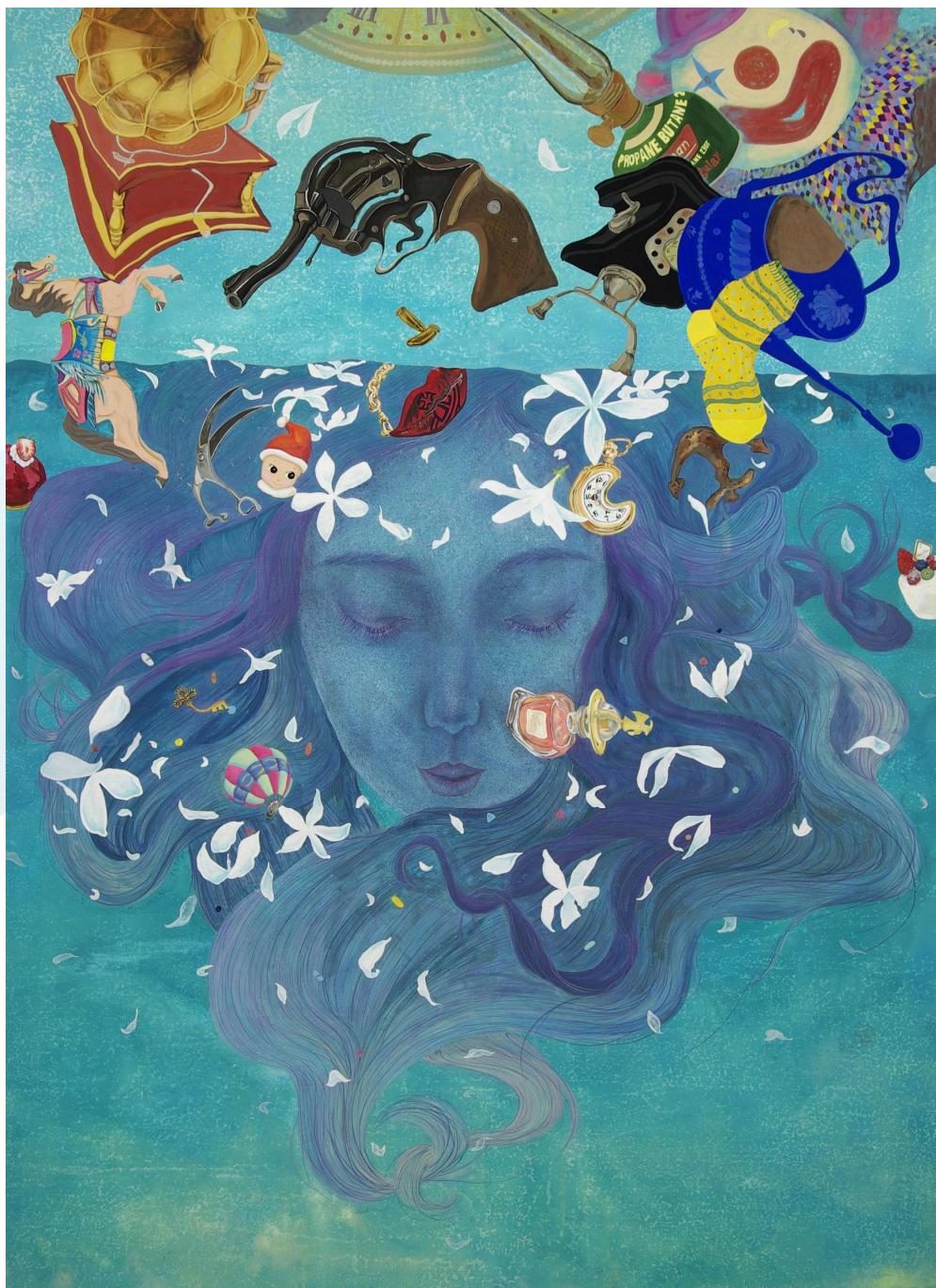


그림 2 MindControl1 2013 장지에 천연채색 180X130cm

여러 가지 일로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 감정조절로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다. 감정조절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돼서 화가 나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한 날들의 반복이었다. ‘엄친 딸’의 화려한 명성 중 하나는 침착한 감정조절이다.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어 분노장애라는 말은 들어 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완벽함을 지닌다. ‘엄친 딸’의 완벽함과 나의 불완전함을 비교하며 더욱 더 우울감에 빠진다. 고통은 다시 자유를 찾게 된다. 나는 ‘엄친 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소요유’ 같은 자유로운 곳을 향해 헤매 인다.

그러던 중에 나는 꽃이 잠긴 물속에 눈을 꽉 감고 잠수한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아름다운 꽃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자신 같았기 때문이다. 잘 다듬어진 완벽한 감정을 앞에 두고 보지도 못 하고 허우적거리는 나 같았다. 이때의 감정은 <그림 1>의 시작이 되었다.

사진을 본 후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종종 아이가 있던 물속을 생각했다. 현실과 떨어진 물속은 환상세계다. 물속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육지 위에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곳이다. 물속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미지의 세계인 물속은 본인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엔 제법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현실을 마주하길 거부하고 꿈을 꾼다. 불완전한 현실에서 벗어나 완벽한 이상이 되어 이상향에 가고픈 마음을 담아 나는 환상으로 가는 꿈을 꾼다. 환상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벌어진 상황, 사람, 인간의 사고방식, 사회체제 등 모든 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세계다. 그런 사실은 마음을 놓이게 만든다. 어느새 물속은 현실 속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물속에 아무런 장비 없이 오랫동안 있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림 1>의 여자는 지친기색 없이 오히려 평온한 듯 담담한 인상이다. 물속은 실재의 공간이 아닌 환상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초현실세계를 표현한다. 환상의 세계에는 깊고 푸른 물속에 완벽한 감정을 지닌 화려한 색감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떠다닌다. 물건들은 과하게 구부려져 흐느적거린다. 이와 상반되게 칙칙해 보이는 보랏빛머리카락을 가진 자화상이

있다. 감정조절이 완벽하지 않은 내가 온전한 감정들을 온전하게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부재를 느끼며 동경하는 장면이다. 과하게 구부리져 흐느적거리는 물건들과 얼굴만 떠있는 자화상은 초현실의 이미지이다.

나는 하나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여 엉뚱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감정의 쳐신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 하곤 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완벽한 물건들을 탐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소유 할 권리가 없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것을 가질 수는 없다.

깊고 푸른 물속은 환상세계이지만 우울하다. 그래서 피코크 블루나 세루리안 블루 같은 밝은 푸른색과 인디고나 프러시안 블루처럼 어두운 푸른색 사이 어딘가의 색이다. 내가 꿈꾸는 환상에서 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마음이 있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 대해 느끼는 동경이 있다. 그것들이 뒤틀려되어 애매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들어난다. 그렇기에 밝음과 어둠 사이 어딘가의 색이다.

물속에 떠다니는 물건들은 완벽한 감정을 상징한다. 완벽한 감정이란 시초에 생긴 순수한 첫 감정이다. 아직 누구에게도 손이 닿지 않은 감정은 막 세공을 마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완벽함을 추구한다. 하지만 내가 손을 뻗는 순간 그 빛은 잃어버린다. 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들을 물건에 이미지화 시켰다. 그래서 주로 화난 상태에서 쓰이는 총은 분노를,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뼈에로는 우울을,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주는 턴테이블은 슬픔을 상징한다.

음울한 느낌마저 드는 푸른 계열과 보랏빛의 자화상의 표현은 물속과 하나를 이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상이라는 공간에 완전히 섞일 순 없는 이방인의 느낌이다. 이방인 같은 나의 존재는 마치 평화로움을 망가트리는 악인 같은 스산함 마저 듣다. 나를 이루는 요소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효과만 안겨준다.

깊고 푸른 물은 푸른 계열의 분채로 장지에 스며들도록 칠했다. 매우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색을 몇 가지 선택하여 한 색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칠하여 자연스럽게 섞어들도록 했다. 자유로운 붓의 터치로 그런 과정을

몇 번 더 한다. 정해진 방식 없는 붓 터치로 배경을 칠하다보면 서로의 색의 경계도 자연스러워지고 밑바탕으로 칠한 호분의 크랙(crack)에 자연스럽게 색이 베여 하나의 효과가 된다.

완벽한 감정인 물건들은 화려한 색체가 들어가고 눈에 띠며 선명하다. 완전 무결하게 보이기 위해 물건들을 물감으로 두텁게 바르는 행위를 반복한다. 어디서 공격이 들어와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견고함과 단단함이 생긴다. 물건들은 매우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되어 물속에 들어 있음을 표현한다. 과장이 된 물건들은 현실 속 물건이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인다. 현실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준다.

이 와는 반대로 자화상은 뿌리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존재가 흐릿하게 표현이 되어 존재 하되 선명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표현했다. 픽셀이 보이는 저해상도처럼 존재여부에 확신을 실어 주지 않는다. 푸른 계열의 보랏빛으로 이루어진 자화상은 푸른 물속과 하나가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기묘함을 준다.

환상이라는 이미지와 우울함이 한데 섞여 애매한 색감을 만들어낸 깊은 물속과 자화상,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물건의 이미지가 어우러져 아이러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는 현실을 잊고 완벽한 것들만 존재 하는 환상을 향해 찾았으나, 그러나 반짝거리고 어여쁜 것 만 보러 간 곳은 매정하게도 이방인과의 벽이 있음을 보여준다. 불안전한 존재는 완벽한 존재들을 탐낼 수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현실보다 잔인하게 일깨워 준다.

환상의 세계라 생각했던 물속은 나에게 오히려 고통만 주던 고통 받는 세계였다. 아름답고 찬란함을 느끼길 바랬던 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세계였다.

IV. Delicious Paradise 시리즈의 세계

4.1 디저트가 주는 환상

4.1.1 디저트에 관한 연구

디저트(dessert)는 후식이라는 뜻으로 식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파이, 케이크, 푸딩, 과일, 젤라틴, 아이스크림, 샤탯, 치즈 등이 기본으로 후식은 이루어진다. 기본 후식의 종류로 일반적인 제조과정에서 온제, 냉제, 빙과제로 구분되어 만들어진다.¹⁵⁾ 음료에는 커피, 홍차와 같이 따뜻한 음료와 우유음료, 과일음료, 청량음료와 같은 차가운 음료가 있다. 잘게 나뉜 디저트의 종류는 이와 같다. 좀더 포괄적이며 디저트가 존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식사 후에 제공되는 요리는 단맛, 풍미, 과일의 3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디저트라 할 수 있다. 식사가 끝나고 식욕도 충분한 상태에서 식사의 끝맺음을 우아하고 향기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눈도 즐겁게 해준다. 결국 이러한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요리의 꽃이라 할 수 있다.”¹⁶⁾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요리의 꽃인 디저트는 아름답다. 외양적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양증맞고 반짝이며 향긋한 내음과 함께 달콤함이 느껴진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웃음이 절로 지어지는 디저트가 환상의 시작이자 환상의 세계가 되는 것은 결코 과한 일이 아니다.

디저트의 양증맞고 예쁜 외양을 사랑한다. 그것을 먹을 때의 달콤함과 더불어 느껴지는 황홀함을 사랑한다. 디저트는 현실이라는 이성적인 공간에서 이성적인 행동으로 단 번에 환상에 가까운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다.

전 작품 MindControl1의 물속에서 나는 환상의 세계를 맛보는 것에 실패해버렸다. 환상세계라 착각하던 물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15) 진양호, (1993), 『서양조리입문』, 경기: 지구문화사, p.184

16) 안호기, (2012), 『디저트 이야기』, 경기: 살림출판사, p.3-4

건 고통뿐이었다. 그 곳은 나에게 고통과 현실보다도 시린 사실들을 일깨워 주었다. 실패의 기억은 나로 하여금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를 찾게 한다. 현실에서 행복감을 안고 그 힘으로 환상의 세계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행복의 여운을 끊임없이 즐기게 해줄 디저트는 나에게 최상의 환상이다.

4.1.2 디저트와 환상의 관계

매운맛, 쓴맛, 신맛, 짠맛, 고소한맛 등은 우리의 혀에 쾌감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맛은 농도가 적정선을 넘게 되면 쾌감은 불쾌감으로 돌변한다. 아무리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청양고추를 매일 쌈장에 찍어 먹기를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맛의 경우는 다르다. 오직 농도에 관계없이 쾌감을 주는 것은 단맛뿐이다.¹⁷⁾

단맛은 달콤하다. 달콤함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 온 순간 행복을 안겨준다. 달콤함이 뇌에서 호르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세로토닌¹⁸⁾, 도파민¹⁹⁾과 페닐에틸아민²⁰⁾이 만들어 낸 호르몬들의 콜라보가 뇌에서 행복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디저트는 달콤함의 정점에 서있다. 오감이 모두 만족이 되는 디저

17) 엄우흠, (2005), 『설탕 : 잘 먹고 잘사는 법 시리즈 067』, 경기: 김영사, p.10

18)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유도된 화학물질로서, 혈액이 응고할 때 혈소판으로부터 혈청 속으로 방출되는 혈관 수축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뇌·내장조직·혈소판(血小板)·비만세포에 들어 있으며, 5-하이드록시트립타민이라고도 한다. 인간과 동물의 위장관과 혈소판,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며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분자로, 호르몬이 아님에도 해피니스 호르몬(happiness hormone)이라 불리기도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2014), 『최신시사상식 핵심 용어사전』, 서울: 박문각 출판

19)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에 속하는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 중 하나로서, 아미노산의 하나인 타이로신으로부터 시작하여 L-dopa를 거쳐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그 후 도파민에 OH기가 하나 추가되어 노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에피네프린으로 합성될 수 있다. 도파민은 혈압조절, 중뇌에서의 정교한 운동조절 등에 필요한 신경전달물질이자 호르몬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기능으로는 쾌감·즐거움 등에 관련한 신호를 전달하여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만약 도파민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며 감정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며, 분비가 과다하면 환각 등을 보는 조현증(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도파민의 전구체인 L-dopa를 처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상계서

20) 초콜릿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앞서 했다. 이중 페닐에틸아민은 암페타민(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과 비슷한 물질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의 느낌처럼 맥박을 뛰게 하기 때문에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사람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뇌에서 페닐에틸아민을 분비한다고 한다. 이영미, (2007), 『잘 먹고 잘 사는 법100- 초콜릿』, 경기: 김영사

트(dessert)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환상은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이다.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법한 것들이 존재 한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또한 미(美)를 탐미(耽美)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그러한 단편적인 정의들이 한데 섞여 환상이 된다. 디저트가 주는 달콤함은 환상과 교집합을 이룬다. 디저트를 입에 넣는 순간 짜릿한 쾌감은 잠시 현실을 잊고 달콤함의 향연에 빠진다. 아름다운 외양과 좋은 냄새, 기분 좋은 촉감, 베어 물었을 때의 소리와 맛을 음미하며 함께하는 기분 좋은 상황과 공간. 달콤함이 주는 힘은 단숨에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형성한다.

디저트는 실재의 공간과 경계를 만들며 묘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그 경계는 환상의 세계로 여행할 시작을 알리는 설렘의 공간이 되어 딜리셔스파라다이스(Delicious Paradise)가 된다. 디저트가 환상으로 가는 매개체가 되고 출입문이 되어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4.2 디저트가 제공하는 환상과 균형

4.2.1 완연한 환상의 세계



그림 3 Delicious Paradise – 완벽한 위장, 72.8 X 53cm, 2016, 캔버스 채색

감정에 이어 이번엔 ‘엄친 딸’의 완벽한 모습. 하나의 인격체 자체를 부려워한다. 하지만 곧 그것으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또다시 절망은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해줄 자유로운 세계로 인도 한다.

<그림 1>에서 나는 물속에서 환상에 젖는 만족감에 실패했다. 실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를 찾게 했다. 나는 기분이 좋거나 우울하거나 화나거나 할 때 달달한 맛을 찾아 헤맨다. 달콤함이 주는 만족감은 당장의 현실을 잊을 정도다. 그 느낌이 곧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완벽한 환상에 완전히 녹아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볼품없고 초라한 자신을 버리고 완벽한 외양을 지닌 고급 커트러리(cutlery)²¹⁾에 자신의 자아를 숨긴다. 커트러리가 된 나는 환상의 세계를 기웃거리며 떠다닌다. 커트러리는 떠있기엔 다소 무겁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무의식이라는 초현실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붉은 배경에 모란꽃을 얹은 케이크 하나가 케이크스탠드(cake stand) 위에 올려져 있다. 배경과 케이크의 조화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준다. 나 자신을 대변하는 커트러리들은 모란케이크 주변을 맴돌면서 감탄을 하며 탐닉한다. 환상인 케이크를 현실인 커트러리와 마찬가지로 물감을 두텁게 올려 표현했다. 그 표현은 환상을 현실로 끌어 올리려는 것인지, 커트러리가 되어서도 환상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장벽을 허물려는 것인지 모호하다.

<그림 2>은 단 하나의 디저트로 집중도를 높인다. <그림 3>보다는 올이 굽은 견을 사용해 좀 더 시원한 느낌과 견이라는 특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그림 3>처럼 반투명한 효과는 없다. 커트러리와 디저트 모두 분채로 꽉 채워 발랐다. 커트러리는 앤틱의 느낌이 나도록 포크나 티스푼에 새겨진 글씨나 장식을 섬세히 표현하다. 환한 이상향의 느낌이 나도록 밝은 색감 속에서 빛을 받은 것처럼 밝게 컬러를 사용했다.

배경은 환상이라는 곳과 그 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21) 1.테이블에 쓰이는 은기류의 총칭. 2.식사용 기구로서 나이프 세트(Knife Set), 포크(Fork), 스푼(Spoon)을 말한다. 레저산업진흥연구소, (2008), 『호텔용어사전』, 서울: 백산출판사

강렬한 붉은 계열의 팽크를 사용했다. 그와 상응 하는 붉은 모란꽃은 집중이 되도록 호분을 외곽으로 붉은 빛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바람을 했다.

고대하던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본인은 설레어 한다. 그 감격을 동경어린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그림3 Delicious Paradise— 완벽한 위장1, 2015, 53×33.3cm, 견에 채색

<그림 3>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이자, 환상의 세계로 가는 출입문이 되는 디저트들의 세계다. 디저트들의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경계가 되어준 공간은 현존하지 않는 것처럼 반투명한 느낌이다. 금단의 사과 처럼 소유하면 큰일 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느낌, 손에 맞닿으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다.

우울한 느낌이었던 전작에 비해서 많이 밝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기루처럼 가깝고도 아득히 멀다. 먼 느낌은 자유롭게 뿌려진 물방울들로 더욱 극대화 된다. 물방울들은 환상과 현실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이다. 다채로운 색감의 물방울들은 꿈결 같은 알록달록함으로 몽롱한 느낌을 준다.

<그림 1>에서 보랏빛여성 이었던 나는, 환상의 세계에선 공중에 떠있는 커트리리들이 된다. <그림 1>에서 융화가 되지 못해 이방인 느낌만 들었던 나는 이번엔 확실히 그 세계에 녹아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기 위해선

나와 환상세계와의 완벽히 융화가 될 매개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완벽히 아름다운 세계에 걸맞은 고급스런 커트러리에 나를 감춘다. 우아하며 기품이 넘치는 고급스런 커트러리들은 완벽한 이상향의 모습을 한 세계에 걸 맞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 속 완벽하지 않은 내가 <그림 2>, <그림 3>에서 만큼은 평소 갈망하던 완벽한 모습이 된다. 이 세계에 완벽히 녹아들기 위해 애를 쓴다. 하지만 완벽한 모습 속에는 불품없고 초라한 행색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커트러리들은 다양한 자세와 위치에서 디저트들을 바라본다. 걸모습은 딜리셔스파라다이스에 존재하는 것들과 다를 바 없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누릴 수 없었던 문화에 흥미로움이 가득한 호기심어린 태도를 취한다. 완벽한 세계는 항상 염원해왔던 것이기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하다. 보면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 즐거운 것.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구경한다. 여행지에서 아름답고 장엄한 경치를 음미하듯 탄성을 지르고 감격을 한다.

모든 면에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나는 다양한 종류의 커트러리가 된지만 결국 화려한 포장지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완벽한 위장을 한 나는 딜리셔스파라다이스 세계를 마음껏 유랑한다.

반투명한 효과는 견(silk)이 투사가 된다는 점을 활용한다. 분홍빛 분채의 뜯 물로 배채기법을 이용해 맑은 분홍빛 배경을 만든다. 대자와 주를 섞어 선을 친 디저트세계를 봉채를 사용하여 최대한 가볍게 칠한다.

파스텔 톤의 물방울들은 배채기법과 앞면에 다시 한 번 뿌려주어 공간감을 준다. 뿌린 형태의 물방울들은 안개처럼 앞이 적당히 보이지 않고 적당히 꿈결 같은 느낌을 표현한다.

공중을 떠다니는 커트러리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분채를 두텁게 빌라 묵직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현실의 것이라 고한다. 환상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달리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지,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가까움을 표현한다.

환상이라는 세계에 완벽히 녹아들려는 욕망에 완벽하게 위장한 나는 점점 지쳐갔다. 너무 완벽히 위장한 나머지 숨통이 트일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

의 안식을 얹기 위해 간곳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 빈틈없는 완벽함의 추구는 불완전한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것이다.

4.2.2 환상과 현실의 균형

‘엄친 딸’의 완벽한 모습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는 나락에 빠진다.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숨 막히는 고립된 공간에서 더는 참지 못하고 숨통이 트일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허우적거린다. 자유로운 세계는 디저트의 세계가 된다. 거기서 나는 진한 행복감을 얻는다. ‘엄친 딸’이라는 존재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완벽히 모든 만물을 이해하며 구속에서 벗어나진 못 하였다. 스스로 결점이 없고 견고하기까지 한 완벽의 존재가 되는 것에 미련을 못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디저트세계에 잘 융화가 될 고급 커트러리에 볼품없는 자신을 숨긴다.

그러나 숨는다는 행위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실을 잊고 황홀한 안위를 찾고자 찾아간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보다 더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은 심각한 긴장과 예민함만 주었다. 현실이나 환상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구속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아름답고 완벽한 공간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한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급 커트러리라는 화려한 외관으로 위장한 자신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하더라도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진실된 행복감을 즐길 수 있다. 그래야 모든 구속에서 해방이 되고 만물을 이해하여 진정한 자유로운 세계, 소요유에 도달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함에 집착이 강했던 나는 아직 환상의 세계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더디지만 천천히 고급 커트러리의 모습에서 볼품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진짜 모습인 일회용 수저로 변해 간다.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던 욕심에 환상과 현실에 불균형이 있다. 불균형적인 모습은 나를 힘들게 했으나 ‘완벽’에 집착을 놓고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균형이 찾아왔다. 커트러리에서 일회용 수저로 변해 가면서 환상과 현실에 균

형이 이루어졌다.

무의식과 꿈과 환상의 세계인 디저트 세계는 인간의 사고로 생각 할 수 없는 위치와 크기로 존재한다. 다양한 각도로 위치한 디저트들이 한 공간에 모여 존재한다. 그 모습은 마치 무중력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은 이미지다. 크기 또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로 존재한다. 즉, 앙증맞다고 생각한 마카롱 옆에 거대하다고 생각한 훌 케이크가 아주 작게 있는 것이다. 조각케이크, 조그마한 쿠키, 커다란 롤 케이크, 쿠키보다 훨씬 큰 컵 등 현실에서 정해진 규범과도 같은 크기들은 환상의 세계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디저트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 거인국에 있는 소인 같아 보이는 커트러리나 일회용 수저 또한 마찬가지다. 소인처럼 작을 수도 있고 디저트와 비등한 크기가 될 수도 있다.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한다.

이제부터 나올 작품들은 철두철미한 위장에서부터 자연스런 본 모습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현실과 환상의 완벽한 균형을 맞춰간다.



그림 4 Delicious Paradise – drawing, 50X70cm, 2015, 지본채색

<그림 2>에서는 디저트 세계를 케이크 하나로 표현했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화면에 1개의 디저트를 설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디저트 세계’ = ‘환상의 세계’라는 의미를 망각하게 만들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간식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했고 너무 바로 세계관을 압축시켜 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옷을 살 때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들면 디테일하게 바느질 마감이나 옷감 상태를 살펴본다. 이처럼 작품관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여주며 작가의 작품세계관을 둘러보게 해주고서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그림 3>에 이어 압축했던 작품을 다시 풀게 했다.

<그림 4>, <그림 5>는 따스한 느낌이 있는 미색의 디저트들이 모여 커다란 세계를 만든다. 그림의 일반적인 일점투시와 달리 원거리 근거리 상관없이 크기는 제각각이며 위치 또한 자유분방하게 선정해 자리 잡고 있다. 그 사이로

포크와 나이프, 티스푼 등 이 된 내가 여기저기를 유랑한다. 기웃거리며 바라보기도 하고 디저트들을 건들이기도 하고 아예 폭파고들기도 한다. 커트러리



그림5 Delicious Paradise- drawing2, 50X70cm, 2015,지본채색

들 가까이에 있는 디저트나 손길이 닿은 디저트들은 화사한 색들이 입혀져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디저트들은 완벽히 색이 입혀져 있고 점점 범위가 커질수록 색은 열어져 날아간다.

갈색 선으로 자유롭게 드로잉이 된 디저트들은 환상의 세계이다. 요정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환상의 세계를 나만의 방식으로 구축한 아름다운 공간이다. 디저트는 오감을 즐겁게 한다. 즐거움은 그 순간 자유를 느끼게 하고 현실을 잊게 해준다. 디저트 하나는 현실과 환상을 연결해주는 문이 되어주지만 그것들이 한 무더기로 수 없이 많이 모이면 그 곳은 환상세계가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곳은 현실의 규칙과는 전혀 무관한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곳은 다시 점 다각도로 디저트들이 존재한다. 크기 또한 상대적이지 않다. 웅장한 홀 케이크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마카롱은 응당 매우 앙증맞은 크기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홀 케이크는 매우 작은 미니어처처럼 마카롱은 매우 큰 거대사이즈가 되어 자리를 빛낸다. 상대적 크기를 무시해 버린다. 서로 각자



Delicious Paradise – drawing, 50X70cm, 2015, 지본채색(부분도)



Delicious Paradise – drawing2, 50X70cm, 2015, 지본채색(부분도)

절대적 크기로 존재한다. 롤 케이크가 땅콩 만하게 있고 바로 옆에 초콜릿 한 조각이 코끼리처럼 커져 있어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현실의 규칙과 무관한 디저트들의 크기와 위치, 각도는 인간의 자존감 높은 자아를 나타낸다. ‘내가 꿈꾸는 나’인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옆에 있든 상관없이 당당하고 나 자신을 사랑 할 줄 아는 나. 하지만 현실 속에 나는 상대적인 내가 되어 비교하고 자신을 낮추다 못해 자기비난을 한다. 음침한 나는 나를 고급 커트러리에 몸을 숨기고 자신이 꿈꾸어 왔던 나를 동경한다. 디저트는 아름다운 환상이자 꿈에 그리는 나인 것이다.

커트러리들은 ‘나’이다. 별 볼일 없는 나를 환상의 세계에 어울릴법한 앤틱 커트러리로 곱게 포장한다. 현실의 나의 모습으로 다가서면 이 환상이 사라질까봐 무섭기 때문이다. 이 완벽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은 자가 들어서면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기분에 완벽한 척 연기를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혀오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환상에 대한 탐닉은 멈추지 않는다.

커트러리들 닿아 있는 디저트나 주변에 있는 디저트들은 곱게 색이 입혀져 있다. 현실에 속해 있는 내가 이상의 것을 탐하면 현실의 색으로 물든다. 색이 입혀지면서 좀 더 현실감이 돌게 되지만 그뿐이다. 남는 건 오로지 완벽한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욕망만 주홍글씨처럼 남는다.

대자와 먹과 약간의 주를 적절히 섞은 물감으로 디저트들을 내 마음이 가는대로 손이 가는대로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을 드러낸 드로잉을 했다. 얇고 섬세하게 묘사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제법 굵은 선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빠른 선으로 초조한 마음을 대신하기도 한다. 드로잉 한 후 얇게 칠해진 따스한 색감의 미색은 환상이 그 어느 곳에서도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얇게 여러 번 불투명한 색이 칠해진 디저트의 색은 다소 텁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텁텁한 느낌이 오히려 좀 현실 같은 느낌이 난다. 커트러리들 역시 얇게 여러 번 불투명한 색으로 칠해 텁텁한 느낌으로 현실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본 모습을 지우고 완벽히 위장을 했지만 이제 슬슬 한계임을 깨닫는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환상으로 도망치듯 왔다. 하지만 이곳도 현실과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오히려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의 그 허무함과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휴식하러 들어갔던 공간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공간으로 바뀌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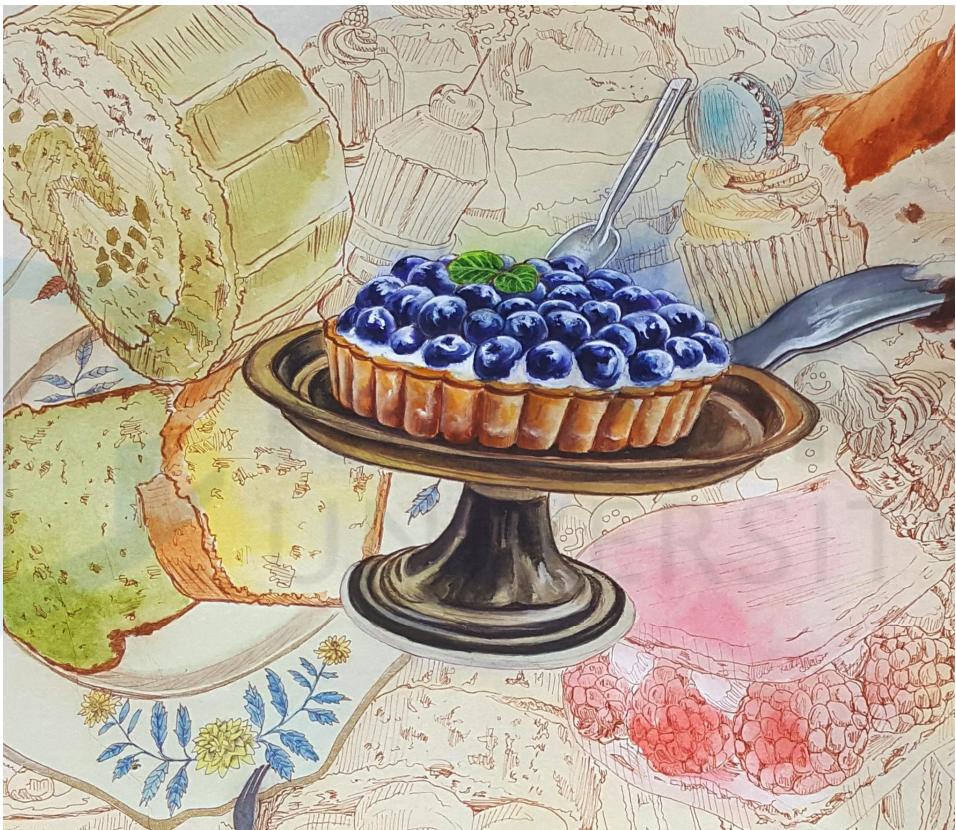


그림6 Delicious Paradise – drawing3, 50×70cm, 2015, 지본채색

완벽함을 위해 고급 커트리리로 위장하였지만 나는 이내 힘에 부쳤다. 마음이 편하고자 찾아 갔던 공간에서 도리어 긴장을 잔뜩 한 채 지냈기 때문이다. 환상과 현실의 불균형은 현실의 잣은 충돌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현실과 환상의 조화와 균형이 적절히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방법은 위장한 고급 포크 스푼들 사이로 슬쩍 자신의 본질이 묻어가는 것 이다. 화려한 포장지 속 숨겨두었던 자아를 드러낸다. 완벽한 세계에 결맞은 상태가 되려다 도리어 고통스러웠던 나에게 본연의 자아는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환상세계에 대한 과한 욕망은 자신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다. 철두철미한

위장은 숨이 막힌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보다 오히려 억압을 받고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는다. 결국 무겁고 꼼꼼하게 포장한 자신을 한 껌풀 벗어낸다. 다양한 모습 중 한 면이 진실 된 본모습으로 나타난다.



Delicious Paradise3 – drawing, 50 X 70cm, 2015, 지본채색(부분도)

멀리서도 바라보고 가까이서도 바라본다. 관심 있는 여자아이에게 괜히 특치는 어린남자아이처럼 케이크를 쭉 찔러보기도 한다. 그런 커트러리 중 눈에 거슬리는 스푼이 있는데, 바로 일회용 수저다. 고급스런 커트러리로 위장한 나의 본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일회용 수저는 현실에서의 나를 상징한다. 일회용 수저는 한 번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저렴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일회용 수저에 나는 동질감을 느낀다. 일회용 수저를 보면 현실 속 초라하고 불품없는 내가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부터 <그림 5>까지 깨달음이 있다면 완벽한 위장, 과하게한 포장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나만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 6>에서는 현실과 환상의 조화를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방법은 위장한 고급 포크 스푼들 사이로 슬쩍 자신의 본질이 묻어가는 것이다. 완벽한 세계에 걸맞은 상태가 되려다 도리어 고통스러웠던 나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똑바르고 가지런한 선이 아닌, 약간은 제멋대로인 선들이 그려져 있다. 환상의 세계이자 무의식의 세계인 디저트세계는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려진다.

포크와 일회용 수저는 선명하게 표현이 된다. 또 두텁게 빌라 현실의 물건인 느낌을 강조 했다. 환상의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이가 잠시 들른 것처럼.

환상이란 아름다움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었던 나는 고급스런 포크와 티스푼이 된다. 하지만 숨어있는 것도 언젠가 들키기 마련이고 완벽히 다른 존재가 되어 연기하는 것도 연극은 끝이 나길 마련이다. 현실과 환상의 사이에 충돌은 잣아진다. 현실 속에서의 삶이 버거워 도망쳤던 나는 환상에서조차 버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지금의 현실과 환상은 한 쪽으로 치우쳐 불균형적인 저울과도 같다. 서로의 밸런스가 맞아 평형을 이루는 저울이 필요하다.



그림7 Delicious Paradise – drawing4, 25×50cm, 2016, 지본채색



그림8 Delicious Paradise – drawing5, 25×50cm, 2016, 지본채색

일회용 수저는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진다. 한 번 쓰이고 버릴 수 있도록 가볍고 무르게 만든다. 다소 투박하며 특별하지 않은 존재다. 일회용수저의 그런 모습은 나와 닮아 있다. 나의 존재 가치는 가볍고 단단하지 않다. 어디에나 볼 수 있는 흔한 존재라 특별하지가 않다. 나는 일회용 수저가 되어 디저트 세계를 유랑한다.

‘엄친 딸’이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친 나는 환상의 공간에서 다시 현실의 내 모습과 마주친다. ‘엄친 딸’의 완벽함에 진저리를 치며 환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환상의 세계에서 나는 ‘완벽’에 집착을 보이며 완벽한 고급 포크 등에 위장한다. 그러다 곧 ‘완벽’을 연기하는 것에 힘에 부쳐한다. 현실을 잊고 행복과 안식을 찾고자 왔던 환상의 세계가 현실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로운 세계로 떠났는데 점점 자유가 아니라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 되어갔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생각이 어리석으면 그의 행동도 어리석기 마련이다. 어리석음은 사람의 눈을 가린 채 수렁으로 인도 한다. 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수렁으로 향하는 줄도 모르고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하다.”²²⁾

현실에서 완벽하지 못하였던 것을 환상의 세계에서 완벽하고자했다. ‘엄친 딸’의 완벽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운 세계를 향했다. 하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또다시 ‘완벽’에 눈이 멀어 탐한다. 그것은 구속과 억압을 벗어던지고 만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다시 구속한다. 나의 어리석음은 환상세계에서도 이어졌다.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가 점점 일그러지며 칙칙해져가려한다. 현실로부터 벗어난 스트레스해소의 공간이 무너지려 한다. 아름답고 완벽한 것만 보고 가지려고 했던 욕망은 나를 일그러진 환상으로 인도한다. 환상과 나 그리고 현실의 불균형은 자유로운 세계의 일그러짐을 경고한다.

현실과 환상의 균형을 위해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

22) 김태관, (2015), 『곁에 두고 읽는 장자』, 흥익출판사, p.111

작한다. 약간의 자기비하와 사실이 점철이 된 일회용 수저의 모습이 드러난다. 완벽에서 멀어지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일회용 수저는 환상의 세계에서 유랑한다.

일회용 수저가 디저트세계를 요리조리 구경하고 있다. 디저트들은 상대적인 크기가 아닌 절대적인 크기(p.21참조)로 다양한 각도로 디저트의 세계를 형성한다. 디저트들은 다채로운 색깔로 입혀져 있다. 그러나 디저트들의 어떤 부분은 색깔이 입혀지지 않고 미색으로 물들어 있다. 일회용 수저가 닿는 부분은 미색으로 물들어 진다.

<그림 4>에서 <그림 6>까지는 환상의 세계인 디저트 세계가 미색이었다. 그리고 고급 커트러리인 내가 디저트에 닿으면 현실의 색으로 물들어져 색깔이 입혀졌다. 그러나 <그림 7>에서부터는 그 반대로 이루어진다. 환상의 세계가 화려한 색이 입혀지고 현실에 존재하는 내가 디저트에 닿게 되면 아무런 색이 없는 미색으로 물들어 진다. 현실의 내가 닿게 되면 아름답고 화려함은 사라지고 무미건조함만이 남는다. 즉, 다채롭고 볼거리가 많은 컬러감을 가진 디저트는 환상이고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마저 드는 미색은 현실을 상징한다.

<그림7>과 <그림 8>의 일회용의 움직임 범위는 매우 소극적이며 작다. 그래서 환상의 세계를 미색으로 물들인 범위가 눈에 안 띄일 정도로 작다. 완벽한 고급 커트러리에 뒤섞여 있을 때와 달리 오로지 자신의 모습만 있을 때는 자신감이 사라져 둔한 행동을 보인다. <그림 6>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완벽한 것들 사이에 섞여 있기에 약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디저트세계를 유랑한다. 하지만 <그림 7>과 <그림 8>에서는 완전히 본 모습만이 남아있다.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속에 적응을 하지 못 한 채 얼어있다. 볼품없고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워 자신감이 떨어져있으며 이 완벽한 공간에 초라한 내가 있어도 될까라는 상념에 사로잡혀 움직임이 둔해진다.

대자와 주를 섞은 물감으로 선을 자유로이 드로잉 한다. <그림 4>와 <그림 6>에 비해 드로잉적인 선의 맛이 덜 들어 난다. 그전 그림과 다르게 현실과 환상이 반대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보다는 면이 많이 드러난다. 일회용 수저의 움직임이 둔해진 지금은 아직 선이 확연히 보이지는 않는다. 드로잉한

디저트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선으로 명암을 표현한다. 그 위에 색을 얹는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짙은 농도의 물감으로 칠해져 있고 그 주변의 디저트들은 짙은 부분보다 옅은 농도의 물감으로 칠해져 있다. 일회용 수저가 닿는 부분은 미색으로 칠해져 있다. 닿는 곳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면서 미색은 사라진다.

일회용 수저의 하얀 반투명감을 주기 위해 호분을 사용 했다. 호분을 바르고 바림을 하여 반투명한 표현을 한다.

현실과 환상의 불균형으로 나는 고급 커트러리로 위장한 모습을 벗고 나의 본질인 일회용 수저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꾸밈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환상의 공간은 긴장이 되는 곳도, 스트레스를 받는 곳도, 무언가에 구속을 받고 얹매이는 답답한 공간도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본 모습인 일회용 수저로 만 있는 이 공간은 어딘지 어려운 공간이다.

화장하고 힘을 쥐 꾸민 모습에 당당함을 가지고 화장기 없는 민낯과 누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여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고급 커트러리라는 화려한 외형으로 자신감을 얻어 이곳저곳 활개를 치며 누볐다. 하지만 아무런 꾸밈없는 순수한 나의 모습은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바짝 얼어 제대로 된 구경도 탐nik도 할 수 없다. 무언가에 의한 압박이나 답답함은 사라졌지만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여 자유로운 세계를 구경하는 날은 좀 더 걸릴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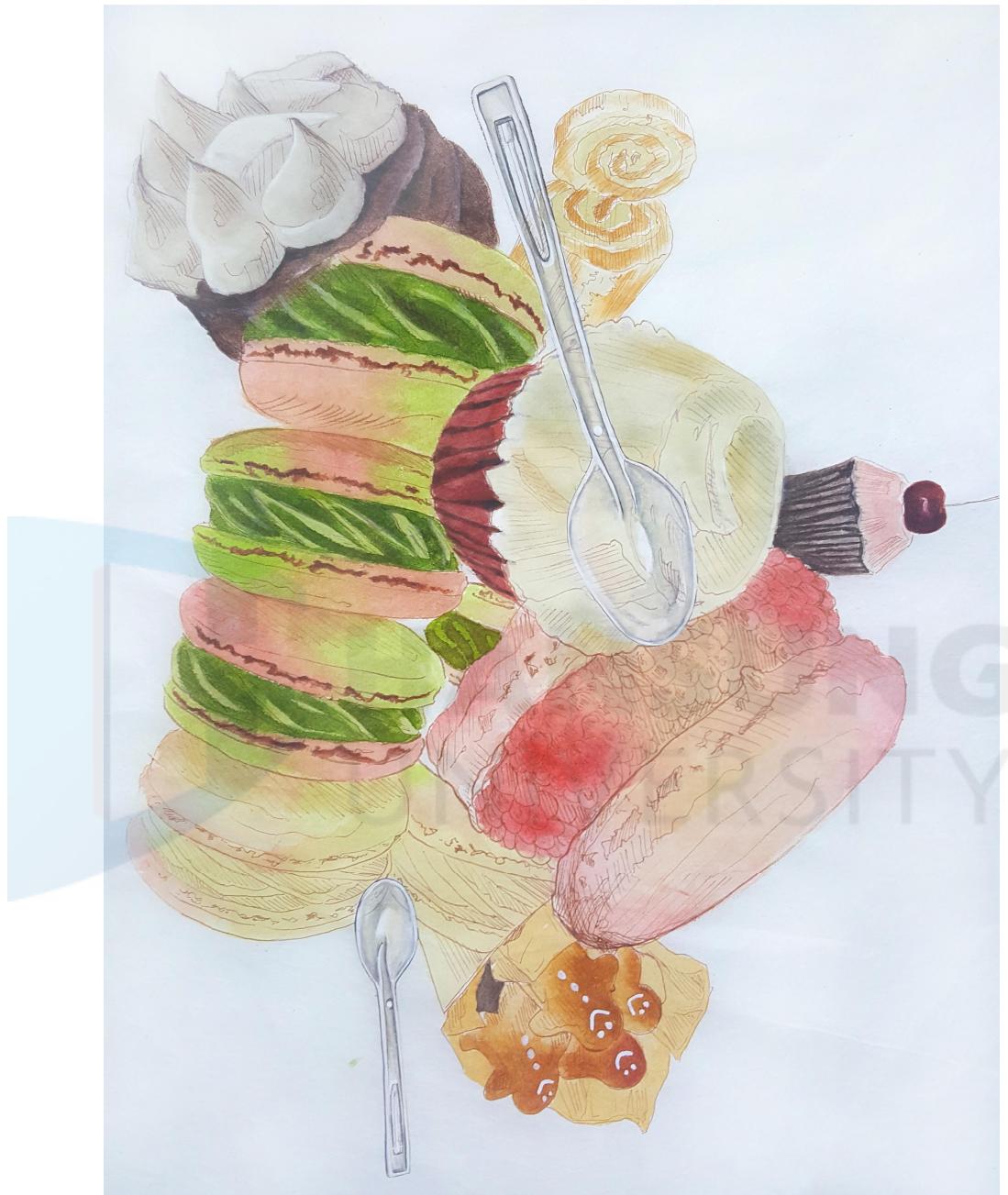


그림9 Delicious Paradise— drawing4, 25×50cm, 2016, 지본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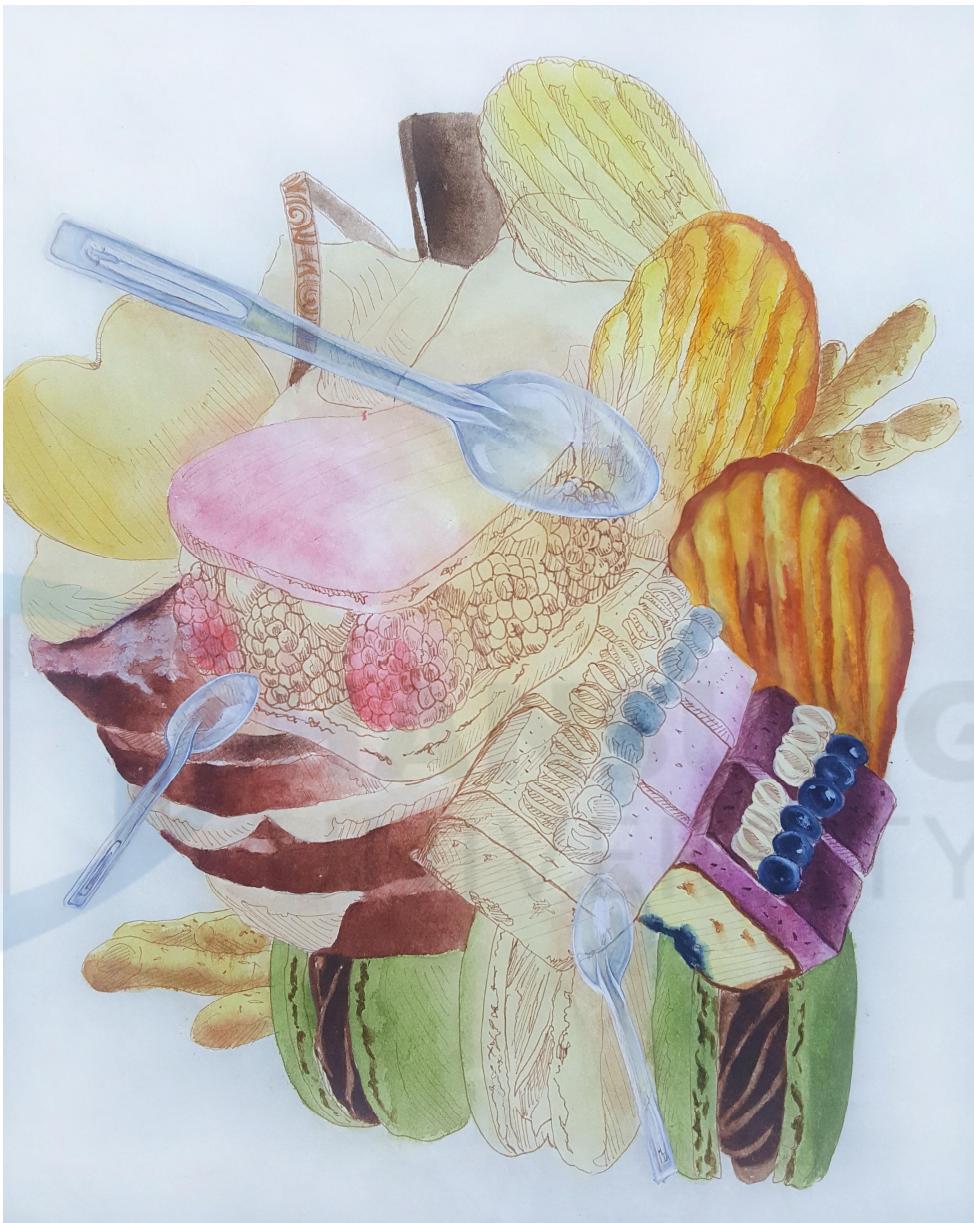


그림10 Delicious Paradise— drawing4, 25X50cm, 2016, 지본채색

일회용 수저의 모습으로 환상의 세계에 드러내 바짝 얼어붙은 나의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일회용 수저는 디저트 세계 이곳저곳을 구경한다. 디저트들의 다양한 크기와 모습의 보인다. 자유로이 있는 디저트들은 절대적인 크기(p.21참조)로 서로의 존재를 알리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있다.

<그림 9>와<그림 10>에서 일회용 수저는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행동범위가 넓어졌다. 디저트의 색이 미색으로 많이 변화해간다.

갈색 선으로 드로잉한 선은 반듯한 선이 아닌 약간은 구불구불한 손맛이 느껴지는 선이다. 현실의 딱딱함이 아닌 환상세계, 자유로운 세계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준다.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과 파스텔 톤의 색감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 환상세계의 화려함과 동환적인 느낌을 나게 한다. 연지, 등황, 주사, 쪽, 대자, 호분 등의 천연 안료로 가볍고 화사한 느낌과 불투명한 묵직함 모두 표현 한다. 디저트의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에서 색이 점점 빠져 미색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바람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한다.

일회용 수저는 호분과 쪽 등을 이용하여 가벼운 듯 투명하게보이다가도 불투명하게 칠하여 살짝 무게감이 느껴진다.

환상의 세계에서 나는 아름답고 완벽한 그 공간에 걸맞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고급 커트러리로 위장을 한다. 하지만 이내 나는 영원히 완벽함을 연기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배우가 연기 하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오듯이.

완벽함을 연기하던 고급 커트러리의 위장을 벗어 던진다. 그리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충실히 담아낸 일회용 수저의 모습으로 환상의 세계를 맞는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임에 현실과 환상의 균형이 이루어 간다. 자아를 이해하고 인정하니 현실만큼이나 긴장이 되고 답답했던 공간이 다시 자유로운 세계가 된다.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환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로 돌아온 나와 현실에서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소요유’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생의 최고의 경지에서 소요자재²³⁾하며 무

23)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또는 어떤 사물에도 끌리지 않는 자유스러운 모습. 도인들의 욕심경계를 넘어서선 무위(無爲)와 자유와 독립의 심법과 행동을 가리킨다. 『남화경』

위를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마음(心)’이다. 이러한 ‘마음’이 온갖 고통과 부자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세계에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자적하게 된다.²⁴⁾

내가 환상의 세계에 있던 현실에 있던 자유로운 세계를 만끽 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 또한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급 커트리리로 위장하여 연기하였던 것도 ‘나’이고 볼품없는 일회용 수저도 ‘나’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나의 외형이 어떠하던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요유를 향한 자유로운 세계는 나의 마음에 따라 어디에서나 어느 모습으로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Delicious Paradise’의 일회용 수저와 ‘현실’의 초라한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순간을 즐긴다. 그러하게 되면 결국 나는 현실이든 환상이든 모든 곳에서 적절한 균형의 행복을 맛 볼 수 있다.



소요유편의 사상으로, ‘지인(至人)은 물아의 구별이 없고(無己), 신인(神人)은 공을 의식하지 않으며(無功), 성인(聖人)은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無名)’고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요자재 [逍遙自在],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 기념 성업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2345&cid=50765&categoryId=50778>

24) 김용수, (1993), 『道家 無爲論의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60

V. 결 론

‘엄친 딸’로 부터의 압박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지겨워지면 나는 현실을 마주하길 거부하고 꿈을 꿨다. 불완전한 현실에서 벗어나 완벽한 이상이 되어 이상향에 가고픈 마음을 담아 환상으로 가는 꿈. 환상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 곳은 초현실주의의 비이성적이고 무의식과 꿈 그리고 환상의 세계를 반영한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벌어진 상황, 사람, 인간의 사고방식, 사회체제 등 모든 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세계다. 현실 속 초라하고 불편없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소요유란 구속이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경지에 노니는 것이다.²⁵⁾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던 바이다. 소요유의 경지를 찾아 나는 환상의 세계로 떠난다. 그러나 환상의 세계에서 조차 소요유의 상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 완벽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세계를 영위해야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착각은 긴장과 억압으로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고급스런 커트러리로 위장한 나의 모습은 곧 환상의 세계를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환상과 현실의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구속도 없으며 얹매이지도 않는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오만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본연의 나의 존재를 그대로를 인정한다. 만물을 이해한다. 사사로운 감정 없이 그냥 이해하며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위장하지 않은 모습인 일회용 수저가 된다. 자유자재 함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정신활동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도록 나는 나아간다.

현실을 초월하는 공간에 있던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현실에 있던 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외형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본질은 동일한 자신임도 깨닫는다. 따라서 지금의 있는 모습과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 있던 그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거

25) 안동림, (2010), 『장자』, 서울: 현암사, p.25

움을 느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즐기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 또한 현실과 환상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 고통과 부자유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자유를 만끽한다.

이상하지만 아름답고 이질적이지만 편안한 Delicious Paradise는 현실과 환상의 균형이 완벽히 이루어진 자유로운 세계이다.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 깊어지는 자유로운 세계의 작품 속에서 영위하는 나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태관. (2015). 『곁에 두고 읽는 장자』 . 서울: 홍익출판사.
- 레저산업진흥연구소. (2008). 『호텔용어사전』 . 서울: 백산출판사.
- 매슈 게일, 오진경 역. (2001). 『다다와 초현실주의』 . 서울: 한길아트.
-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2014). 『최신시사상식 핵심 용어사전』 . 서울: 박문각 출판.
- 법정스님. (1972). 『무소유』 . 서울: 범우사.
- 신현숙. (1992). 『초현실주의』 . 서울: 동아출판사.
- 안동림. (2010). 『장자』 . 서울: 현암사.
- 안호기. (2012). 『디저트 이야기』 . 경기: 살림출판사.
-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 경기: 파주 미메시스.
- 엄우흡. (2005). 『설탕 : 잘 먹고 잘사는 법 시리즈 067』 . 경기: 김영사.
- 오강남. (1999).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장자』 . 서울: 현암사.
- 이영미. (2007). 『잘 먹고 잘 사는 법100- 초콜릿』 . 경기: 김영사.
- 진양호. (1993). 『서양조리입문』 . 경기: 지구문화사.
- 최기숙. (2010). 『문학의 기본 개념3-환상』 .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푸페이롱, 심의용 역. (2011). 『장자 교양 강의』 . 경기: 돌베개.
- 피오나 브래들리. 김금미 역. (2003). 『현대미술총서-초현실주의』 . 경기: 열화당.

2. 논문

- 김용수. (1993). 『道家 無爲論의 研究』 .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기원. (2014). 『초현실주의 회화의 현실관 연구: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마그리트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채론. (2010). 『팀 버튼의 환상성 연구:<이상한 나라의 앤리스>를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대학원: 애니메이션학과. 석사 학위논문.
- 조경현. (1991). 소요와 장자 철학. 『중국철학』 , 2권, 중국철학회.
- 최지희. (2007).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3. 웹 사이트

네이버지식백과. 도피[escape,逃避].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380&cid=40942&categoryId=31531>

네이버 지식백과. 소요자재 [逍遙自在].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 기념 성업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2345&cid=50765&categoryId=50778>

네이버지식백과. 장자 [莊子].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639&cid=40942&categoryId=33395>

ABSTRACT

A Study on the Balance of Reality and Fantasy

– Focused on my painting –

Jang, Ji-Won

Major in Oriental Painting and

True Colored Fainting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Everyone has a perfect presence around them such as so-called a daughter of mother's friend who is a typical model student. Such a perfect existence comes upon me with a great deal of pressure. I seek a fantasy world to escape from it. My work begins with escaping from tough reality to fantasy.

In this paper, my work is based on 'the aesthetics of free and easy wandering' and 'surrealism'. The ultimate goal which is an absolute freedom and unconsciousness of surrealism is to become a big root in my future work.

'MindControl1' represents that imperfect I feels dejected and being alienated because it can't get perfection even in the fantasy world. In the series of 'Delicious Paradise', an imperfect I finds a medium which can strongly connect reality and fantasy with the memories of failure in MindControl1. I selected the dessert for that which often make me feel

intensely fantastic in reality. My work is based on surrealism to show unreasonable and mysterious world opposed to real world.

In the disguise series —Delicious Paradise, I set the exaggerated fantasy world of failed memories of being fantastic. I might not fully enjoy fantasy with my shapeless state in real world. Therefore, I disguise myself as luxurious forks and teaspoons. I feel, however, exhausted from trying to fit myself into perfection.

In the drawing series —Delicious Paradise', I make a proper balance of reality and fantasy to myself feeling tired by focusing on fantasy too much. In the fantasy world, it shows my shapeless ego as it is which is disguised as a luxurious fork. A disposable spoon which is a figure of essence roams around the fantasy world, making a good balance as a weights of scales.

I tried to escape from the perfect presence to fantasy. Though, I was pressed by 'perfection' even in the fantasy world. I rather gain a tension from where I came to take a rest. I decide to admit who I am to make a balance within a disproportion between reality and fantasy. Therefore, I can feel comfort and happiness in the fantasy. I look forward to meeting myself and my works realizing a state of 'free and easy wandering' from it.

【Keywords】 Fantasy, Reality, Perfection, Escape, Balance, Free and easy wandering, Surrealism